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강 미 희(Mi-Hee Kang)*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분석결과 |
| II. 연구방법 | 1. 종합결과 |
| 1. 분석대상 | 2. 기준별 결과 |
| 2. 분석기준 | IV. 결론 |
| 3. 분석방법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창간 40년을 맞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전수조사를 통해 주요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1974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1,365편의 논문이며, 분석 기준은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자 소속지역 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는 문헌정보학일반이 452편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료조직 213편, 정보서비스 188편, 정보학 155편, 독서지도 101편, 도서관경영 91편, 서지학 84편, 장서개발 58편, 기록관리학 20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보학은 증가추세인 반면 서지학은 감소추세며, 기록관리학은 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구비 지원 여부는 428편이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며, 이중 315편은 교내지원인 반면 나머지 108편은 정부지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연구의 경향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무했던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303편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연구자 소속지역은 대구, 경북에 집중되었던 초창기 현상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 학회지에서 전국규모 학회지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주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major trend through exhaustive search of papers contained i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at has been published for 40 years. Therefore, 1,365 paper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from 1974 to 2013 were analyzed. The analysis criteria include detailed subject and joint research status, research fund supporting, research area etc.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research topics, paper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the most, 452 papers followed by resource organization, 213 papers. The rest was found in the order of information service 188, information science 155 papers, reading guidance 101, library management 91, bibliography 84, collection development 58,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 papers. Through this, it was analyzed that information science is on an increasing trend while bibliography is on an decreasing trend and records management shows sluggish production. Second, as for research fund supporting, it turned out that 428 papers were funded and 315 papers among them were supported by the university while the remaining 108 paper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ird, joint research is on an increasing trend and unlike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no papers for early, papers were found to increase up to 303 papers for recent. Fourth, unlike the early phenomenon concentrated in Daegu, research areas showed even distribution throughout the country in recent years. This showed that it has grown from certain area-based academic journal to nationwide academic journal.

Keywords: Research topic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mhkang08@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4년 12월 1일 • 최초심사: 2014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14년 12월 1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2014. [http://dx.doi.org/10.16981/kliss.45.201412.457]

I. 서론

문헌정보학의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013년을 기점으로 4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었다. 1974년 5편의 논문을 수록한 『도서관학논집』 제1권을 출발로 2013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4호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총 89책에 1,365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성장은 4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환경변화와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한 학문공동체의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15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발한 소규모 지역학회지에서 전국규모의 대형학회지로 성장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종합하여 특정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축적된 결과물은 연구자 개개인의 신념, 가치관, 관심분야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지난 40년의 연구성과를 전수조사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아가 주요 동향을 밝히고자 기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1974년 최초로 발간된 『도서관학논집』이라는 창간호부터 2013년 12월 발간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4호에 수록된 총 1,365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소속지역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발전에 대한 자기성찰과 나아가 향방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1974년 창간호부터 2013년 제44권 4호에 이르기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총 1,365편의 논문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1974년 4월 20일 대구시립도서관에서 창립회원 15명으로 발족한 경북도서관학회에서 동년 10월 『도서관학논집(圖書館學論輯)』이라는 명칭으로 제1집을 발간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그 후 1978년 12월 경북도서관학회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로 학회명을 개칭하였으며,

1995년에는 발간횟수를 연 2회로 변경하여 『도서관학논집』 제25집부터 1, 2호를 발간하였다.¹⁾ 3년 뒤인 1999년에는 『도서관학논집』이라는 학회지명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로 변경하고 발간횟수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 창간부터 2013년 12월 발간된 제44권 4호에 이르기까지 발행된 책은 총 89책이며, 이에 수록된 논문은 총 1,365편이다. 이에 대한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발간 현황(1974~2013)

기간	현황	누계	발행횟수	내역
1974년	『도서관학논집』 제1권 발간	1책	연 1회 발행	1974-1994(21년) 연 1책, 총 21책
1995년	『도서관학논집』 제22권 1, 2호 발간	26책	연 2회 발행	1995-1998(4년) 연 2권, 총 8책
1999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26권 1, 2, 3, 4호 발간	30책	연 4회 발행	1999-2013(15년) 연 4책, 총 60책
2013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1, 2, 3, 4호 발간	89책		
계		89책		

2. 분석기준

다양한 관심에 의해 생산된 수많은 논문을 몇 개의 주제로 구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분류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형태로든 의미 있는 경향을 읽어내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분석기준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논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연도별 생산량과 연구주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연구주제를 첫 번째 분석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주제를 문헌정보학 전체 연구영역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영역에 국한시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예를 들면 『정보관리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서은경(2010)의 경우 연구주제를 정보학에 한정하고 있다. 즉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정보학일반, 계량정보학, 정보이용, 정보조직, 정보처리, 정보검색, 정보설계 및 평가, 정보시스템, 정보자원관리, 정보네트워크, 정보사회, 정보서비스 등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전분야의 논문을 수록해 온 만큼 도서관학이나 정보학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수의 논문이 적절하지 못한 기준에 구분될 가

1) 공식적으로는 1996년부터 연 2회 발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95년 연 2회, 1996년 연 1회, 1997년 연 2회, 1998년 연 3회 등으로 발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 동안 총 8회 발간되었다.

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전체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문헌정보학,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주제 분석기준으로 규정하였다. 이상 4개의 대기준에서 문헌정보학은 다시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등으로 중구분하고 이들 중구분에 대해서는 다시 5-8개로 세 구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도출한 연구주제와 더불어 나머지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소속지역 등은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차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소속지역 등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본 연구에 착안점을 준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손정표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 문헌정보학 관련분야의 7개 전문학회지와 16개 대학 문헌정보학과 창립기념논문집, 기타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2,271편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분야를 문헌정보학기초,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공공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장서개발은 일반이론, 콘텐츠관리, 정책/방침, 장서구성, 폐기, 장서평가, 수서 등 7개의 기준으로, 정보서비스는 공공봉사일반, 참고봉사(일반, 전자정보서비스, 참고사서, 조직/제도, 상담커뮤니케이션, 평가), 일반봉사, 특수봉사, 지역개방, 대공중 관계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보학은 이론, 정보검색, 자동색인, 초록, 시소러스, 도서관자동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계량서지학, 인용분석, 정보기술, 이용자인터페이스, 정보처리, 정보이용행태, 도서관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디지털도서관, 참고질의 시스템, 정보정책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들은 나성실(1979)에서 최희곤(2003)에 이르기까지 19편의 기존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것으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손정표의 연구주제 분석기준의 상당부분을 차용하였다. 연구주제의 대구분과 중구분에 이어 세구분의 참고자료는 윤희운(2011), 김정현(2013), 김종성(2013), 강순애(1997), 김규환, 남영준(200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윤희운은 도서관경영과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5개에 수록된 2,567편의 연구경향 분석에서 정책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물시설, 마케팅, 측정평가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선행연구는 물론 DDC 및 KDC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도출된 것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차용하였다.

김정현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6개의 문헌정보학관련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607편의 자료조직 관련 논문의 분석에서 자료조직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등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상당히 많은 기존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손정표의 분

석기준과도 유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김종성(2013)은 문헌정보학 관련 전문학회지 3개에 대해 창간부터 2012년까지 수록된 191편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진흥, 독서운동, 학교독서교육, 독서평가, 독서지도교육론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표 2〉 선행연구 개관

연구자	연구주제	분석기간	분석대상	분석기준
강순애 (1997)	서지학	1986-1996 (122편)	『서지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지학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관리, 도서관사, 기타
손정표 (2003)	문헌정보학	1957-2002 (2,271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계간서지학보』 『서지학연구』 『국회도서관보』 『도협월보』 『도서관』 기타학과창립기년논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기초,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공공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장서개발: 일반이론, 콘텐츠관리, 정책/방침, 장서구성, 폐기, 장서평가, 수서 정보서비스: 공공봉사일반, 참고봉사(일반, 전자정보서비스, 참고사서, 조직/제도, 상담커뮤니케이션, 평가), 일반봉사, 특수봉사, 지역개발, 대공중 관계 정보학: 이론, 정보검색, 자동색인, 초록, 시스러스, 도서관자동화,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계량서지학, 인용분석, 정보기술, 이용자인터페이스, 정보처리, 정보이용행태, 도서관네트워크, DB, 디지털도서관, 참고질의 시스템, 정보정책
김규환, 남영준 (2009)	기록관리학	1999-2009 (374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 및 매체, 기록관리학 및 교육, 인력 및 윤리, 아카이브즈 및 기록물관리, 모형 및 체계, 법/정책/제도, 기관, 시스템 장비, 표준 및 기준, 조직화, 평가, 기록정보서비스, 기타
서은경 (2010)	정보학	1984-2009 (825편)	『정보관리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학일반, 계량정보학, 정보이용, 정보조직, 정보처리, 정보검색, 정보설계 및 평가, 정보시스템, 정보자원관리, 정보네트워크, 정보사회, 정보서비스
윤희윤 (2011)	도서관경영	2001-2010 (2,567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물시설, 마케팅, 측정평가
김정현 (2013)	자료조직	1970-2010 (607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기록관리학회지』 『서지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조직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 초록, 메타데이터
김종성 (2013)	독서	창간-2012 (191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독서론,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독서진흥, 독서운동, 학교독서교육, 독서평가, 독서지도교육론 연구형태: 교육인력간, 교육인력+현장인력간 연구비: 교내연구비,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5권 제4호)

참조하여 독서지도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같은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비 지원 여부와 공동연구에 대한 기준도 그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공동연구 현황과 연구비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김종성의 연구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순애(1997)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의 서지학 연구경향 분석에서 서지학일반 및 응용, 교감학, 목록학, 판본학, 고문서, 고문헌관리, 도서관사, 기타 관련연구 등으로 분석기준을 구분하였다. 도서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론적인 자료에 제시된 것과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의 서지학 세부기준으로 수용하였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기록관리학 관련 전문학회지 3개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에서 기록물 및 매체, 기록관리학 및 교육, 인력 및 윤리, 아카이브즈 및 기록물관리, 모형 및 체계, 법/정책/제도, 기관, 시스템 장비, 표준 및 기준, 조직화, 평가,

〈표 3〉 분석기준

		대주제	세부주제							
연구주제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 일반	1-1	1-2	1-3	1-4	1-5	1-6	1-7	-
			일반	연구방법론	도서관평가	공동보존	사서교육	연구경향	저작권	-
		도서관경영	2-1	2-2	2-3	2-4	2-5	2-6	2-7	-
			일반	정책제도	조직관리	예산관리	마케팅	측정평가	연구경향	-
		자료조직	3-1	3-2	3-3	3-4	3-5	3-6	3-7	-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작성법	메타데이터	연구경향	-
	장서개발	4-1	4-2	4-3	4-4	4-5	4-6	4-7	-	
		일반	선정	수서	폐기	협동	보존관리	정책	평가	
	정보서비스	5-1	5-2	5-3	5-4	5-5	5-6	5-7	5-8	
		일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용자교육	이용자인식	서비스품질	이용행태	정보요구	
	독서지도	6-1	6-2	6-3	6-4	6-5	6-6	6-7	-	
		일반	독서교육	독서치료	독서운동	독서태도	연구경향	기타	-	
정보학	7-1	7-2	7-3	7-4	7-5	7-6	7-7	7-8		
	일반	정보정책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정보활용	자동화	DB	연구경향		
서지학	8-1	8-2	8-3	8-4	8-5	-	-	-		
	일반	목록학	교감학	판본학	연구경향	-	-	-		
기록관리학	9-1	9-2	9-3	9-4	9-5	-	-	-		
	일반	기록매체	아카이브	법/정책/제도	연구동향	-	-	-		
일반특성	공동연구 현황	10-1	10-2	10-3	10-4	10-5	-	-	-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	-	-	
	연구비 지원 여부	11-1	11-2	11-1-1	11-1-2	11-1-3	-	-	-	
		유	무	정부기관	교내	기타	-	-	-	
연구자 소속지역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기타	-		

기록정보서비스, 기타 등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소속기관도 분석하였는데, 이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발전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연구자 소속지역 분석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자 소속지역은 전적으로 김규환, 남영준(2009) 연구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표 3>과 같다.

3. 분석방법

자료는 전자저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다만 DB 일련번호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2007년 6월 발행의 제38권 제2호와 12월 발행의 제4호는 인쇄본을 참조하였다. 결과적으로 1974년부터 1998년까지의 『도서관학논집』과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총 89권을 열람하여, 1,365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40년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논문을 최소한 2-3번씩 열람하여 연구주제를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과 집중력을 요하는 것으로,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각 호에 게재된 전체 논문의 원문을 일련번호 순으로 입수하였다. 둘째, 입수 논문의 제목, 목차, 초록, 키워드, 결론을 통해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첫 페이지의 각주에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소속지역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자 소속지역 등의 구분은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관계의 확인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반복 작업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연구주제는 <표 4>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공동연구자와 거의 일치할 때까지 상호교차 작업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1년 단위로 집계한 후, 최종적으로 5년 단위로 재편성하였다

<표 4> 개별논문의 분석기준별 구분의 실제(1974년 10월 제1권)

논문 번호	연구영역									일반특성		
	문헌 정보학	도서관 경영	자료 조직	장서 개발	정보 서비스	독서 지도	정보학	서지학	기록 관리	공동 연구	연구비 지원	연구자 지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	-	-	-	-	-	-	-	2	2	4
2	1	-	-	-	-	-	-	-	-	1	2	4
3	-	-	-	-	-	-	-	2	-	1	2	3
4	-	-	-	-	1	-	-	-	-	1	2	4
5	1	-	-	-	-	-	-	-	-	1	2	4
세분	1=3	0	0	0	1=1	0	0	2=1	0	1=4 2=1	1=0 2=5	3=1 4=4
총계	3	0	0	0	1			1	0	5	5	5

Ⅲ. 분석결과

1. 종합결과

가. 총 생산량 현황

창간부터 1992년까지 19년간의 연간 논문 생산량은 10편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가 창간 20년째인 1993년 15편으로 증가하는데, 이를 기점으로 1994년 16편, 1995년 27편, 1998년 50편, 1999년 52편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회지 발행횟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연 1회 발행되던 1994년 이전까지의 연평균 생산량은 10편 이하이며, 연 2회 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 1회 발행되었던 1996년의 경우도 연 17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회지 발행횟수의 증가에 따라 성장세는 지속되어 2007년과 2008년에는 88편으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2009년 86편, 2010년 65편, 2013년에는 75편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특징 하나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대부분은 후반 20년간의 생산량이라는 점이다. 창간 당시인 1974년에는 연 생산량이 5편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1992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의 결과는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총 147편으로, 이는 전체 생산량 1,365편의 10.8%에 불과하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의 생산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전체 논문의 약 90%는 후반부인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회지 발행횟수의 증가와 각호에 게재되는 논문양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토대는 연구비 지원 확대, 문헌정보학의 연구분야 확대, 연구자 수 증가 등의 연구환경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다.

세분 주제로는 문헌정보학일반 452편(33.1%), 도서관경영 94편(6.9%), 자료조직 213편(15.6%), 장서관리 58편(4.2%), 정보서비스 188편(13.8%), 독서지도 101편(7.4%), 정보학 155편(11.3%), 서지학 84편(6.2%), 기록관리 20편(1.5%)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창기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문헌정보학일반은 약 33%의 비중으로 최근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료조직과 정보서비스, 정보학 등은 10%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도서관경영, 독서지도, 서지학, 기록관리 등은 10% 미만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는 논문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 문헌정보학일반과 서지학의 논문이 대부분인 반면 1980년대 들어서는

〈표 5〉 연도별 논문 총 생산량

영역 연도	문헌정보학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		총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1974	3	6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1	20	0	0.0	5	100	
1975	0	0.0	0	0.0	1	25	2	50	0	0.0	0	0.0	0	0.0	1	25	0	0.0	4	100	
1976	1	20	0	0.0	0	0.0	1	20	1	20	0	0.0	0	0.0	2	40	0	0.0	5	100	
1977	3	37.5	0	0.0	4	50	0	0.0	0	0.0	0	0.0	0	0.0	1	12.5	0	0.0	8	100	
1978	2	33.3	1	16.7	0	0.0	0	0.0	2	33.3	0	0.0	0	0.0	1	16.6	0	0.0	6	100	
1979	2	28.6	0	0.0	1	14.2	0	0.0	2	28.6	0	0.0	0	0.0	2	28.6	0	0.0	7	100	
1980	3	50.0	1	16.7	0	0.0	0	0.0	1	16.7	0	0.0	0	0.0	1	16.6	0	0.0	6	100	
1981	1	16.7	0	0.0	0	0.0	0	0.0	3	50.0	0	0.0	2	33.3	0	0.0	0	0.0	6	100	
1982	4	44.5	0	0.0	1	11.1	1	11.1	3	33.3	0	0.0	0	0.0	0	0.0	0	0.0	9	100	
1983	2	22.2	1	11.1	2	22.2	0	0.0	1	11.1	0	0.0	1	11.1	2	22.3	0	0.0	9	100	
1984	2	22.2	0	0.0	2	22.2	1	11.1	1	11.1	0	0.0	1	11.1	2	22.3	0	0.0	9	100	
1985	3	42.8	0	0.0	1	14.3	1	14.3	0	0.0	0	0.0	2	28.6	0	0.0	0	0.0	7	100	
1986	2	28.5	0	0.0	1	14.3	3	42.9	1	14.3	0	0.0	0	0.0	0	0.0	0	0.0	7	100	
1987	1	14.3	1	14.3	2	28.6	2	28.6	0	0.0	1	14.2	1	0.0	0	0.0	0	0.0	8	100	
1988	2	28.6	0	0.0	2	28.6	1	14.3	0	0.0	0	0.0	2	28.5	0	0.0	0	0.0	7	100	
1989	2	25.0	1	12.5	2	25.0	0	0.0	1	12.5	0	0.0	1	12.5	1	0.0	0	0.0	8	100	
1990	3	42.8	1	14.3	1	14.3	0	0.0	1	14.3	0	0.0	1	14.3	0	0.0	0	0.0	7	100	
1991	1	12.5	0	0.0	3	37.5	0	0.0	1	12.5	0	0.0	3	37.5	0	0.0	0	0.0	8	100	
1992	2	33.3	1	16.7	1	16.7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6	100	
1993	5	33.3	0	0.0	4	26.6	2	13.3	3	20.0	0	0.0	0	0.0	1	6.8	0	0.0	15	100	
소계	44	30.0	7	4.8	28	19.0	14	9.5	23	15.6	1	0.7	15	10.2	15	10.2	0	0.0	147	100	
1994	3	18.8	2	12.3	4	25.0	1	6.3	1	6.3	0	0.0	1	6.3	4	25.0	0	0.0	16	100	
1995	5	18.5	2	7.4	5	18.5	2	7.4	4	14.8	2	7.4	3	11.1	4	14.9	0	0.0	27	100	
1996	7	41.1	2	11.8	2	11.8	0	0.0	4	23.5	1	5.9	1	5.9	0	0.0	0	0.0	17	100	
1997	15	40.6	4	10.8	5	13.5	0	0.0	3	8.1	1	2.7	4	10.8	4	10.8	1	2.7	37	100	
1998	19	38.0	2	4.0	7	14.0	4	8.0	7	14.0	0	0.0	6	12.0	3	6.0	2	4.0	50	100	
1999	14	26.9	7	13.5	10	19.2	3	5.8	8	15.4	0	0.0	7	13.5	1	1.9	2	3.8	52	100	
2000	18	33.9	3	5.7	6	11.3	1	1.9	5	9.4	1	1.9	13	24.5	3	5.7	3	5.7	53	100	
2001	11	17.5	7	11.1	9	14.3	2	3.2	15	23.8	2	3.2	13	20.6	4	6.3	0	0.0	63	100	
2002	24	30.1	5	7.9	8	12.7	4	6.4	4	6.3	2	3.2	10	15.9	5	7.9	1	1.6	63	100	
2003	21	32.3	4	6.3	13	20.0	1	1.5	6	9.2	7	10.8	9	13.8	3	4.6	1	1.5	65	100	
2004	22	28.2	7	8.9	11	14.1	2	2.6	8	10.3	6	7.7	11	14.1	10	12.8	1	1.3	78	100	
2005	27	36.4	5	6.8	16	21.6	1	1.6	9	12.7	7	9.5	6	8.1	3	4.1	0	0.0	74	100	
2006	28	37.3	2	2.7	6	8.0	2	2.7	15	20.0	5	6.7	10	13.3	6	8.0	1	1.3	75	100	
2007	28	31.8	11	12.5	18	20.5	2	2.3	11	12.5	9	10.2	6	6.8	1	1.1	2	2.3	88	100	
2008	32	36.4	4	4.5	13	14.8	4	4.5	10	11.4	13	14.8	9	10.2	3	3.4	0	0.0	88	100	
2009	29	33.7	5	5.8	13	15.1	4	4.7	15	17.5	8	9.3	8	9.3	2	2.3	2	2.3	86	100	
2010	29	44.6	3	4.6	12	18.5	1	1.5	6	9.2	9	13.9	3	4.6	2	3.1	0	0.0	65	100	
2011	27	38.0	5	7.0	10	14.1	3	4.2	13	18.3	6	8.5	6	8.5	1	1.4	0	0.0	71	100	
2012	23	30.7	4	5.3	10	13.3	2	2.7	11	14.7	12	16.0	6	8.0	5	6.7	2	2.6	75	100	
2013	26	34.6	3	4.0	7	9.3	5	6.7	10	13.3	9	12.0	8	10.7	5	6.7	2	2.7	75	100	
소계	408	33.5	87	7.1	185	15.2	44	3.6	165	13.6	100	8.2	140	11.5	69	5.7	20	1.6	1,218	100	
총계	452	33.1	94	6.9	213	15.6	58	4.2	188	13.8	101	7.4	155	11.4	84	6.2	20	1.4	1,365	100	

정보학과 정보서비스 논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기록관리학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문헌정보학일반과 자료조직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 반면 정보학과 정보서비스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정보학의 증가현상이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장서개발과 서지학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서지학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학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논문 내용의 변화와 특성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논문내용 변화와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논문 제목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용어를 모두 도출한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창기에는 주로 도서관실태조사, 도서관법 및 행정, 사회교육 등의 문헌정보학일반에 대한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 현장에 대해 다룬 논문도 국내 현황보다는 미국 등의 해외 현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1976년 발행된 제3권에는 전체 5편 중 2편(40%)이 미국 도서관에 대한 설명이다. 1977년에는 전체 8편 중 50%에 해당하는 4편이 자료조직과 관련된 논문이다. 당시의 연구에서 표현 언어는 대부분 한자이며, 소수의 영어논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대 들어서는 연구비 지원 논문 및 공동연구의 논문이 출현함으로써, 연구환경의 변화를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기술(이영자 1980), 도서관정보학교육(송영선 1981), 도서관자동화(이영자, 남권희 1983), 도서분류자동화(심의순, 이경호 1984), 자동색인(이영자 1985) 등의 용어가 나타난 것이다. 정보관련 논문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하나의 특성은 1985년부터 포괄적인 주제에서 세분화된 주제의 연구가 증가한 점이다. 예를 들면 사서교사(이춘택 1985), 시각장애인서비스(손문철, 김영귀 1986), 독서교육(변우열 1987) 등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주제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1990년대 들어서는 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식문헌전송시스템(박준식, 김정현, 1989)과 같은 과도기적 용어 출현에 이어 하이퍼텍스트 검색기법으로서의 브라우징(김영귀 1990), 계량서지학(운구호 이영철 1991), 서지데이터베이스(김지훈 1994), 전자도서관(김정현 1995), 정보기술(이승채 1995), 온라인 목록(장혜란, 석경임 1995), WWW(박일중 1996), 전문DB(노진구 1996), 디지털도서관(서희 1997), 미래도서관(양재한 1997), 전자우편(문정순 1997), 전자잡지(노진구 1997), Full-textDB(이제환, 황혜선 1997), 인터넷 자원(이명규 1999), 메타데이터DB(장동춘 1999) 등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용어들이 출현하고 있다. 정보학의 증가현상과 동시에 주제 세분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이제환 1994), 주민참여(서혜란 1995),

〈표 6〉 논문 제목에 나타나는 특성

연도	권/호	편수	제목에 나타나는 새로운 용어 및 일반적 특성
1974	제1권	5	- 도서관실태, 도서관관련 법/행정, 사회교육 등 연구주제 대부분은 문헌정보학일반에 해당
1975	제2권	4	- 표현언어 대부분이 한자
1976	제3권	5	- 전체 5편 중 2(4.0%)편 미국현황에 대한 논문
1977	제4권	8	- 8편 중 4편(50.0%)이 자료조직 논문
1978	제5권	6	- 정보서비스보다는 정보봉사라는 용어 사용
1979	제6권	7	- 전체 7편중 2편(28.6%)이 서지학 논문
1980	제7권	6	- 정보기술(이영자) 용어 출현, 연구비 지원 논문 및 2인 공동연구 출현(김남석, 김정소)
1981	제8권	6	- 도서관·정보학교육(송영선) 용어 출현
1982	제9권	9	- 전체 9편 중 3편(30%)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논문
1983	제10권	9	- 도서관자동화(이영자, 남권희) 용어 출현
1984	제11권	9	- 도서분류자동화(심의순, 이경호) 용어 출현
1985	제12권	7	- 사서교사(이춘택), 자동색인(이영자) 등의 연구주제 출현
1986	제13권	7	- 시각장애자서비스(손문철, 김영귀) 연구주제 출현
1987	제14권	8	- 독서교육(변우열) 용어 출현
1988	제15권	7	-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김정현) 용어 출현
1989	제16권	8	- 전자식문헌전송시스템(박준식, 김정현) 용어 출현
1990	제17권	7	- 검색기법으로서의 브라우징(김영귀) 용어 출현
1991	제18권	8	- 하이퍼텍스트(이영자), 계량서지학(윤구호, 이영철) 등의 용어 출현
1992	제19권	6	- 전체 논문 6편 중 4편(66.7%)이 한글 논문
1993	제20권	15	- 논문편수 약 2배 증가, 전논문의 한글화
1994	제21권	16	- 저작권(이제환), 서지데이터베이스(김지훈) 등의 용어 출현
1995	제22, 23권	27	- 주민참여(서혜란), 전자도서관(김정현), 정보요구(이승채), 온라인목록(장혜란 등) 등 용어출현
1996	제24권	17	- 이용자만족도(강미혜), www(박일중), 전문DB(노진구) 등의 용어 출현
1997	제25, 26권	37	- 디지털도서관(서휘), 미래도서관(양재한), 전자잡지(노진구), Full-textDB(이제환) 등 용어출현
1998	제27, 28, 29권	50	- 노인복지(이진영), 메타탐색(김성희), 이용자중심(노진구), 이용자인터페이스(최경주) 용어출현
1999	제30권(1,2,3,4호)	52	- 문헌정보학의 위기인식(송정숙), 정보격차(황혜선) 등의 용어 출현
2000	제31권(1,2,3,4호)	53	- 지식기반사회(곽동철), 정보전문직(홍현진) 등 정보사회 반영한 용어 출현
2001	제32권(1,2,3,4호)	63	- 전분야의 정보기술 응용연구 증가, 자료조직분야의 주제세분화, 이용자연구 증가
2002	제33권(1,2,3,4호)	63	- 지식경영(윤구호), 공공대출권(정현태) 등의 용어 출현
2003	제34권(1,2,3,4호)	65	- 문화프로그램(이경민), 전자책활용(오경목) 등의 용어 출현
2004	제35권(1,2,3,4호)	77	- 소외집단(이제환 등), 주부의 상함마음(김수경) 등의 주제 구체화 현상 나타남
2005	제36권(1,2,3,4호)	74	- 어린이도서관(이연옥), 오픈엑세스(박미성) 등의 연구주제 출현
2006	제37권(1,2,3,4호)	75	- 유비쿼터스도서관(배경제, 광승진), 평생학습(윤희원) 등의 연구주제 출현
2007	제38권(1,2,3,4호)	89	- 라이브러리 2.0(구중억, 이응봉) 용어 출현
2008	제39권(1,2,3,4호)	88	- 작은도서관(김영석), 주민참여프로그램(정종기), 결혼이민자정보접근(이용재 등) 등 출현
2009	제40권(1,2,3,4호)	86	- 전체 25편 중 5편(25%)이 학교도서관 연구
2010	제41권(1,2,3,4호)	65	- 공공도서관위기(윤희원), 대학서사의위기(이시영) 등의 위기인식 출현
2011	제42권(1,2,3,4호)	71	- 장애인서비스(강숙희), 다문화(조용완, 이수상), 어린이서비스(이용재) 등의 용어 출현, 4호의 경우 전체 18편 중 4편(22.2%)이 작은도서관 연구
2012	제43권(1,2,3,4호)	75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김세영 등), 비정규사서의고용안정(양재한) 등의 용어 출현
2013	제44권(1,2,3,4호)	75	- 3호의 경우 전체 21편 중 7편(33.3%)이 학교도서관과 독서관련 연구

도서관마케팅(최상기 1995), 이용자만족도(강미혜 1996), 정보서비스의 품질평가(김지훈 1997), 정부기록보존제도(김상호 1997), 노인복지(이진영 1998), 메타탐색엔진(김성희 1998), 이용자중심(노진구 1998), 이용자인터페이스(최경주, 이란주 1998)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보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주제의 범위 확대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문헌정보학의 위기 인식(송정숙 1999)과 같은 논문은 당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이전의 정보학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정보사회를 반영하는 연구와 주제 세분화 현상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지식기반사회(곽동철 2000), 정보전문직(홍현진 2000), 지식경영(윤구호 2002) 등의 사회변화를 반영한 주제와, 공공대출권(정현태 2002), 문화프로그램(이경민 2003), 공동보존도서관(배현숙 2004), 아동교육(임형연 2004), 소외집단(이제환 등 2004), 고객관계관리(유양근 2004), 어린이도서관(이연옥 2005), 오픈엑세스(박미성 2005) 등의 주제 세분화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제 세분화와 더불어 정보학 관련 연구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주목할 점은 2010년 들어 다시 공공도서관의 위기(윤희윤 2010), 대학사서의 위기(이시영 2010) 등 현실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가 나타난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장애인서비스(강숙희 2011), 다문화(조용완, 이수상 2011), 유아교육기관도서관(박현주 2011), 어린이서비스(이용재 2011), 비정규사서의 고용안정(양제한 2012)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12월 발행의 제42권 4호에는 전체 논문 18편 중 약 4편(22%)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이며, 2013년 9월 발행의 43권 3호에는 전체 논문 21편 중 학교도서관과 독서관련 연구가 7편(33.3%)이다. 이상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연구자의 개별적 관심과 실천으로 진행되는 연구 과정에서도 사회현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현상의 집중화 뒤엔 소수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의 자성찰과 자기교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유기체의 특성도 발견할 수 있다.

2. 기준별 결과

기준별 분석은 앞에서 밝혔듯이 문헌정보학일반, 자료조직,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독서지도, 정보학, 서지학, 기록관리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별 분석은 편의상 5년 단위로 구간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가. 문헌정보학일반

문헌정보학일반은 총 452편으로, <표 7>과 같이 일반 393편(86.9%), 연구방법론 9편(2.0%), 도서관평가 19편(4.2%), 공공보존 6편(1.3%), 사서교육 9편(2.0%), 연구경향 7

편(1.6%), 저작권 9편(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5년 단위의 구간별 특성을 보면 [구간 1], [구간 2]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에는 주제 세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1974년 창간부터 1983년까지는 일반이 100%로 나머지 주제에 대한 연구는 단 1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후 [구간 3], [구간 4]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즉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도서관 평가와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각각 1편씩 수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구간 5]부터 [구간 8]에서는 연구방법론, 도서관 평가, 사서교육, 연구경향 등의 논문이 1편씩 출현하였고, 1999년부터는 주제 세분화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5년은 일반이 76.9%, 연구방법론, 4.2%, 공동보존 3.7%, 사서교육 5.2%, 연구경향 1.5%, 저작권 3%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연구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학문의 연구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심화된 주제로의 연구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7〉 문헌정보학일반의 영역별 논문 생산량 현황(5년 단위)

연도구분		영역		일반		방법론		평가		공동보존		사서교육		연구경향		저작권		계	
		구간	연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9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100
2	1979-1983	1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100
3	1984-1988	8	80.0	0	0.0	1	10.0	0	0.0	0	0.0	0	0.0	1	10.0	10	100		
4	1989-1993	1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3	100
5	1994-1998	45	91.9	1	2.0	1	2.0	0	0.0	1	2.0	1	2.1	0	0.0	49	100		
6	1999-2003	78	88.6	4	4.6	3	3.4	0	0.0	0	0.0	2	2.3	1	1.1	88	100		
7	2004-2008	125	91.2	1	0.7	4	2.2	1	1.1	1	1.1	2	1.5	3	2.2	137	100		
8	2009-2013	103	76.9	3	2.2	10	7.5	5	3.7	7	5.2	2	1.5	4	3.0	134	100		
계		393	86.9	9	2.0	19	4.2	6	1.3	9	2.0	7	1.6	9	2.0	452	100		

나 도서관경영

도서관경영은 <표 8>과 같이 총 95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영일반 32편(33.7%), 정책 및 제도 14편(14.7%), 조직 및 인사관리 25편(26.3%), 예산관리 1편(1.1%), 마케팅 10편(10.5%), 측정 및 평가 12편(12.6), 연구경향 1편(1.1)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경영에 대한 연구는 경영일반과 조직관리 연구가 약 60%로 나머지 주제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며,

특히 예산관리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은 도서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기하면 관심이 촉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구간 6]인 1999년부터 주제세분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발행횟수가 연 4회로 증가한 시점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표 8〉 도서관경영의 영역별 논문 생산량 현황(5년 단위)

연도구분		영역															
구간	연도	일반		정책/제도		조직관리		예산관리		마케팅		측정/평가		연구경향		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2	1979-1983	1	5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2	100
3	1984-1988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4	1989-1993	0	0.0	2	66.7	0	0.0	0	0.0	1	33.3	0	0.0	0	0.0	3	100
5	1994-1998	2	16.7	0	0.0	7	58.3	0	0.0	2	16.7	1	8.3	0	0.0	12	100
6	1999-2003	11	42.3	3	11.5	6	23.1	1	3.9	2	7.7	3	11.5	0	0.0	26	100
7	2004-2008	11	37.9	4	13.8	6	20.7	0	0.0	3	10.3	5	17.3	0	0.0	29	100
8	2009-2013	7	33.3	4	19.0	5	23.8	0	0.0	1	4.8	3	14.3	1	4.8	21	100
계		32	33.7	14	14.7	25	26.3	1	1.1	10	10.5	12	12.6	1	1.1	95	100

다. 자료조직

자료조직의 전체 논문은 213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생산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주제별로는 <표 9>와 같이 자료조직일반 28편(13.1%), 분류법 61편(28.6%), 목록법 81편(38.0%), 주제분석 16편(7.5%), 색인작성법 14편(6.6%), 메타데이터 8편(3.8%), 연구경향 5편(2.3%) 등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주제와 달리 일반보다는 분류법, 목록법 등의 연구가 많으며, 특히 목록법 연구는 38%나 수행된 점이다. 주제분석 역시 분류, 목록에 포함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분류법과 목록법은 자료조직 연구의 주요 분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룰수록 주제세분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구간 6]부터는 주제분석, 색인작성법, 메타데이터 등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전체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제심화 현상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9〉 자료조직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영역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작성		메타데이터		연구경향		계	
연도구분	연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0	0.0	0	0.0	3	60.0	0	0.0	2	40.0	0	0.0	0	0.0	5	100
2	1979-1983	1	25.0	0	0.0	2	50.0	0	0.0	1	25.0	0	0.0	0	0.0	4	100
3	1984-1988	3	37.5	2	25.0	3	37.5	0	0.0	0	0.0	0	0.0	0	0.0	8	100
4	1989-1993	1	9.1	3	27.3	7	63.6	0	0.0	0	0.0	0	0.0	0	0.0	11	100
5	1994-1998	2	8.7	9	39.1	8	34.8	0	0.0	3	13.0	1	4.4	0	0.0	23	100
6	1999-2003	3	6.5	15	32.6	16	34.8	6	13.0	3	6.5	1	2.2	2	4.4	46	100
7	2004-2008	7	10.9	20	31.2	25	39.1	2	3.1	3	4.7	5	7.8	2	3.2	64	100
8	2009-2013	11	21.2	12	23.1	17	32.7	8	15.4	2	3.8	1	1.9	1	1.9	52	100
계		28	13.2	61	28.6	81	38.0	16	7.5	14	6.6	8	3.8	5	2.3	213	100

라. 장서개발

장서개발은 <표 10>과 같이 총 58편으로, 일반 8편(13.8%), 선정 8편(13.8%), 수서 10편(17.2%), 폐기 1편(1.7%), 협동 9편(15.6%), 보존 및 관리 10편(17.2%), 정책 10편(17.2%), 평가 2편(3.5%)로 나타났다. 장서개발은 초창기부터 비교적 주제 세분화가 잘 이

〈표 10〉 장서개발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영역		일반		선정		수서		폐기		협동		보존관리		정책		평가		계	
연도구분	연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0	0.0	1	33.3	0	0.0	0	0.0	1	33.3	1	33.3	0	0.0	0	0.0	3	100
2	1979-1983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3	1984-1988	0	0.0	2	25.0	2	25.0	0	0.0	1	12.5	2	25.0	1	12.5	0	0.0	8	100
4	1989-199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50.0	2	100
5	1994-1998	1	14.3	0	0.0	0	0.0	0	0.0	1	14.3	3	42.9	2	28.5	0	0.0	7	100
6	1999-2003	1	9.1	1	9.1	4	36.3	0	0.0	2	18.2	1	9.1	1	9.1	1	9.1	11	100
7	2004-2008	2	18.2	2	18.2	3	27.3	0	0.0	3	27.2	0	0.0	1	9.1	0	0.0	11	100
8	2009-2013	4	26.7	2	13.3	1	6.7	0	0.0	1	6.6	3	20.0	4	26.7	0	0.0	15	100
계		8	13.8	8	13.8	10	17.2	1	1.7	9	15.6	10	17.2	10	17.2	2	3.5	58	100

루어진 편이며, 연구 역시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왔다. 즉 [구간 1, 2, 3, 4]인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동안 주제별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구간 5, 6, 7,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현상은 1994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생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1999년부터 학회지 발행횟수 증가로 인해 논문 생산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추세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주제별로는 폐기와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서관 공간은 제한된 반면 장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 역시 중요한 연구 영역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표 11>과 같이 총 188편으로 문헌정보학에서 인정되는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서비스일반 116편(61.7%), 이론 8편(4.3%), 커뮤니케이션 4편(2.1%), 이용자교육 10편(5.3%), 이용자인식 18편(9.6%), 서비스품질 9편(4.8%), 이용행태 11편(5.8%), 정보요구 12편(6.4%) 등으로 정보서비스일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 이론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정보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구간 1, 2, 3, 4]에서는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지만 [구간 6]부터 연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4년부터 1993년까지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형성되지

<표 11> 정보서비스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연도구분	영역	일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용자교육		이용자인식		서비스품질		이용행태		정보요구		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1	1974-1978	4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00
2	1979-1983	7	70.0	0	0.0	3	3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	100
3	1984-1988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2	100
4	1989-1993	3	42.8	2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2	28.6	7	100
5	1994-1998	9	47.4	3	15.8	1	5.3	2	10.5	2	10.5	2	10.5	0	0.0	0	0.0	19	100
6	1999-2003	24	63.1	1	2.6	0	0.0	3	7.9	5	13.2	2	5.3	1	2.6	2	5.3	38	100
7	2004-2008	35	66.0	1	1.9	0	0.0	0	0.0	6	11.3	1	1.9	6	11.3	4	7.6	53	100
8	2009-2013	33	60.0	1	1.8	0	0.0	5	9.1	5	9.1	4	7.3	4	7.3	3	5.4	55	100
계		116	61.7	8	4.3	4	2.1	10	5.3	18	9.6	9	4.8	11	5.8	12	6.4	188	100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에 집중한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5년간은 그전 10년에 비해 상대적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독서지도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는 101편으로 <표 12>와 같다. 세부 주제별로 보면 독서일반 10편(39.6%), 독서교육 32편(31.7%), 독서치료 19편(18.8%), 독서운동 5편(4.9%), 독서태도 4편(4.0%), 연구경향 1편(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지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독서교육과 독서치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보면 [구간 1, 2, 3, 4]에서는 단 1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이다. 즉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1편이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구간 6]인 1999년에서 2003년까지 5년 동안 58.3%로 증가함과 더불어 주제 세분화도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간 7]부터 절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비중 면에서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2> 독서지도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영역 연도구분		독서일반		독서교육		독서치료		독서운동		독서태도		연구경향		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1	1974-197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979-198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984-1988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4	1989-199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994-1998	1	250.	3	75.0	0	0.0	0	0.0	0	0.0	0	0.0	4	100
6	1999-2003	7	58.3	2	16.7	3	25.0	0	0.0	0	0.0	0	0.0	12	100
7	2004-2008	16	40.0	12	30.0	8	20.0	2	5.0	1	2.5	1	2.5	40	100
8	2009-2013	16	36.4	14	31.8	8	18.2	3	6.8	3	6.8	0	0.0	44	100
계		40	39.6	32	31.7	19	18.8	5	4.9	4	4.0	1	1.0	101	100

사. 정보학

정보학에 대한 연구는 155편으로 문헌정보학에서 정보학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주제별로 보면 정보학 일반은 52편(33.5%), 정보정책 5편(3.2%), 정보처리 25편(16.1), 정보시스템

30편(19.4%), 정보활용 19편(12.3%), 자동화 15편(5.2%), 데이터베이스 8편(5.2%), 연구경향 1편(0.6%) 등이다. 이를 통해 정보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는 분포가 고를 수 있다. 시기별로는 <표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구간 1]인 1974년에서 1978년 5년간은 단 1편도 이루어지 않았으며, 1979년부터 1983년까지 [구간 2]에서 정보학일반 2편, 자동화 1편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구간 3]인 1984년에서 [구간 4]인 1993년까지 10년 동안 12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으며, [구간 5]인 1994년에서 1998년까지 5년 동안 15편이 생산되었다. 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구간 6]인 1999년에서 2003년으로 5년 동안 52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구간 7]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2편, [구간 8]인 2009년에서 2013년에는 31편으로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전체 경향에서 정보학은 주요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정보학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영역		일반		정보정책		정보처리		시스템		정보활용		자동화		DB		연구경향		계	
연도구분	연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1	1974-197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979-1983	2	66.7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3	100
3	1984-1988	2	33.4	0	0.0	1	16.6	2	33.4	0	0.0	1	16.6	0	0.0	0	0.0	6	100
4	1989-1993	2	33.4	0	0.0	1	16.6	2	33.4	0	0.0	1	16.6	0	0.0	0	0.0	6	100
5	1994-1998	8	53.3	1	6.7	1	6.7	2	13.3	0	0.0	2	13.3	0	0.0	1	6.7	15	100
6	1999-2003	14	26.9	2	3.8	7	13.5	12	23.1	4	7.7	8	15.4	5	9.6	0	0.0	52	100
7	2004-2008	11	26.2	2	4.7	7	16.7	9	21.4	11	26.2	1	2.4	1	2.4	0	0.0	42	100
8	2009-2013	13	42.0	0	0.0	8	25.8	3	9.6	4	12.9	1	3.2	2	6.5	0	0.0	31	100
계		52	33.5	5	3.2	25	16.1	30	19.4	19	12.3	15	5.2	8	5.2	1	0.6	155	100

아. 서지학

서지학은 총 84편으로 초창기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주요 연구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부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부 주제별 경향을 보면 서지학일반이 32편(38.1%), 목록학은 13편(15.5%), 교감학은 12편(14.3%)인 반면 책의 물리적 형태와 변천과정 등을 연구하는 판본학은 26편(30.9%)에 이른다. 즉 서지학 일반과 판본학이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시기별 경향은 <표 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간 1]인 1974년부터 1978년 5년 동안

6편이 생산될 만큼 초창기부터 관심주제였다. 그러나 다른 주제와 달리 학회지 발행횟수의 증가로, 전체 논문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구간 6]인 1999년부터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서지학에 대한 관심의 감소 탓인지 타 전문학회지와와의 관련성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결과만 보면 서지학 연구는 확실히 감소추세를 알 수 있다.

〈표 14〉 서지학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연도구분 구간		영역		일반		목록학		교감학		관본학		연구경향		계	
		연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1	1974-1978	0	0.0	3	50.0	2	33.3	1	16.7	0	0.0	6	100		
2	1979-1983	3	60.0	1	20.0	0	0.0	1	20.0	0	0.0	5	100		
3	1984-1988	2	100	0	0.0	0	0.0	0	0.0	0	0.0	2	100		
4	1989-1993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		
5	1994-1998	7	46.7	4	26.7	2	13.3	2	13.3	0	0.0	15	100		
6	1999-2003	3	18.7	0	0.0	1	6.3	11	68.7	1	6.3	16	100		
7	2004-2008	7	30.4	2	8.7	7	30.5	7	30.4	0	0.0	23	100		
8	2009-2013	10	66.7	2	13.3	0	0.0	3	20.0	0	0.0	15	100		
계		32	38.1	13	15.5	12	14.3	26	30.9	1	1.2	84	100		

자. 기록관리학

기록관리학은 총 20편으로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구체적 세분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일반 9편(45.0%), 기록매체 2편(10%), 아카이브 6편(30%), 법, 정책, 제도 2편(10%), 연구동향 1편(5%)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대부분이 기록관리학일반과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분석의 의미가 퇴색될 만큼 주제 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기별로는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간 1]인 1974년부터 [구간 4]인 1993년까지 20년 동안 단 1편의 논문도 생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간 5]인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 동안 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으며, 나머지는 [구간 6, 7, 8]에서 생산되어 최종 20편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학 연구는 모두 최근 20년 동안 생산된 것이며, 이는 연 평균 1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기록관리학 자체의 연구부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타 전문학회지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결과만을 보면 기록관리학이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으로 통합 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기록관리학의 영역별 논문 총 생산량(5년 단위)

영역		일반		기록매체		아카이브		법/정책/제도		연구동향		계	
연도구분	연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979-198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984-198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1989-199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	1994-1998	0	0.0	0	0.0	1	33.3	2	66.7	0	0.0	3	100
6	1999-2003	1	14.3	1	14.3	5	71.4	0	0.0	0	0.0	7	100
7	2004-2008	3	7.5	1	25.0	0	0.0	0	0.0	0	0.0	4	100
8	2009-2013	5	83.3	0	0.0	0	0.0	0	0.0	1	16.7	6	100
계		9	45.0	2	10.0	6	30.0	2	10.0	1	5.0	20	100

차. 공동연구 현황

공동연구는 총 303편으로, 이는 전체 1,062편의 22.2%에 달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77.8%의 논문은 1인 단독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연구 대부분은 1인 단독 연구로, [구간 1]에서는 단 1편만이 2인 공동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간 2]에서는 4편, [구간 3]에서는 6편, [구간 4]에서는 3편 등 1974년부터 1993년까지는 공동연구 자체가 많지 않으며, 또한 참여 인원도 대부분 2인으로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간 5]까지 지속되지만, [구간 6]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56편으로 증가하며, 또한 3인 공동연구 5편, 5인 이상의 공동연구도 1편 수행된다. 이는 1999년부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발행횟수가 연 4회로 변경되어 논문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생산량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구간 7]인 2004년에서 2008년에는 공동연구 비중이 25.5%로 증가된 점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구간 8]인 2009년에서 2013년에는 111편(29.8%)으로 증가한다. 즉 공동연구는 초창기 3%대 수준에서 40년이 지난 최근에는 약 30%까지 증가한 것이다.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인해 공동연구의 증가 경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6〉 공동연구 현황(5년 단위)

구분	연도	단독연구		공동연구								총계			
		1인 단독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5인 이상	소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27	96.4	1	3.6	0	0.0	0	0.0	0	0.0	1	3.6	28	100
2	1979-1983	33	89.2	4	10.8	0	0.0	0	0.0	0	0.0	4	10.8	37	100
3	1984-1988	32	84.2	6	15.8	0	0.0	0	0.0	0	0.0	6	15.8	38	100
4	1989-1993	41	93.2	3	6.8	0	0.0	0	0.0	0	0.0	3	6.8	44	100
5	1994-1998	128	87.1	19	12.9	0	0.0	0	0.0	0	0.0	19	12.9	147	100
6	1999-2003	240	81.1	50	16.9	5	1.7	0	0.0	1	0.3	56	10.9	296	100
7	2004-2008	300	74.5	75	18.6	23	5.7	4	1.0	1	0.2	103	25.5	403	100
8	2009-2013	261	70.2	79	21.2	24	6.5	6	1.6	2	0.5	111	29.8	372	100
계		1,062	77.8	237	17.4	52	3.8	10	0.7	4	0.3	303	22.2	1,365	100

카.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비 지원은 <표 1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이룰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구간 1인] 1974년에서 1978년에는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논문이 단 1편도 없었다. 그러나 [구간 2인] 1979년에서 1983년까지의 5년간은 전체연구 37편 중 2편이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새로운 연구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구간 4인] 1989년에서 1993년에는 전체 논문 44편 중 4편(9.1%)이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며, 그중 1편은 정부지원인 반면 나머지 3편은 교내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던 연구비 지원은 [구간 5인] 1999년에서 2003년에는 43편(29.3%)으로 급증하는데, 이는 논문 생산량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상대적 비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간 6인] 1999년에서 2003년에는 무려 104편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어 전체 논문 296편의 35.1%에 달한다. 이중 정부지원도 15편(14.4%)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간 7인] 2004년에서 2008년에는 126편이 연구비 지원하에 이루어져 논문 편수로는 증가하였지만, 이는 전체 논문 403편의 31.3%로 그 이전시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구간 8인] 2009년에서 2013년에는 전체 논문 372편 중 149편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전체 연구의 40.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비 지원하의 연구가 전무했던 초창기와 달리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의 차이

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비 지원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발전을 이끈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표 17〉 연구비 지원 여부(5년 단위)

연도구분		연구비지원 유무						연구비 지원기관							
		유		무		계		정부기관		교내		기타		계	
구간	연도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논문수(%)	
1	1974-1978	0	0.0	28	100	28	100	0	0.0	0	0.0	0	0.0	0	0.0
2	1979-1983	2	5.4	35	94.6	37	100	2	100	0	0.0	0	0.0	2	100
3	1984-1988	0	0.0	38	100	38	100	0	0.0	0	0.0	0	0.0	0	0.0
4	1989-1993	4	9.1	40	90.9	44	100	1	25.0	3	75.0	0	0.0	4	100
5	1994-1998	43	29.3	104	70.7	147	100	6	13.9	35	81.4	2	4.7	43	100
6	1999-2003	104	35.1	192	64.9	296	100	15	14.4	88	84.6	1	9.6	104	100
7	2004-2008	126	31.3	277	68.7	403	100	38	30.2	87	69.0	1	0.8	126	100
8	2009-2013	149	40.1	223	59.9	372	100	46	30.9	102	68.5	1	0.6	149	100
계		428	31.4	937	68.6	1,365	100	108	25.2	315	73.6	5	1.2	428	100

타. 연구자 소속지역

연구자 소속지역은 총 1,365편의 논문보다 387편이 많은 1,752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저자와 공동연구자 모두에 대해 각각 1편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인 공동연구 237편, 3인 공동연구 52편, 4인 공동연구 10편, 5인 이상 공동연구 4편에 중복된 387편의 논문이 추가되어 총계는 <표 18>과 같이 1,752편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소속지역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간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초창기 5년은 전체 논문 29편 중 부산/울산/경남의 3편(10.3%)을 제외한 나머지 26편(89.7%) 모두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창립 회원 15명으로 발족한 경북도서관학회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간 2]에서는 서울 1편(2.4%), 대전/충청 1편(2.4%), 광주/전라/제주 3편(7.4%) 등의 지역 확산 현상이 나타나며, [구간 3]에서도 역시 인천/경기/강원 1편(2.3%), 대전/충청 4편(9.1%), 부산/울산/경남 1편(2.3%), 광주/전라/제주 4편(9.1%) 등의 확대가 지속된다. 이와 같은 타 지역 연구자의 논문게재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경북의 비중은 초창기 최고 89.7%에서 77.2%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구간 6]에서는 대구/경북의 비중이 무려 32.3%로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경향은 가속화 되어 [구간 7]의 2004년에서 2008년에는 서울의 비중이 24.8%로, 15.0%인 대구/경북보다 높은 비중으로 변했으며, [구간 8]인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결과만 보면 서울 350편(20.0%), 인천/경기/강원 132편(7.5%), 대전/충청 208편(11.9%), 대구/경북 548편(31.3%), 부산/울산/경남 271편(15.4%), 광주/전라/제주 224편(12.8%), 기타 19편(1.1%)으로 여전히 대구/경북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러나 1974년에서 1978년까지의 초창기 현상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기반의 소규모 학회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규모의 대표학회지로 성장하게 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18〉 연구자 소속지역 현황(5년 단위)

연도구분	지역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기타		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1	1974-1978	0	0.0	0	0.0	0	0.0	26	89.7	3	10.3	0	0.0	0	0.0	29	100
2	1979-1983	1	2.4	0	0.0	1	2.4	36	87.8	0	0.0	3	7.4	0	0.0	41	100
3	1984-1988	0	0.0	1	2.3	4	9.1	34	77.2	1	2.3	4	9.1	0	0.0	44	100
4	1989-1993	2	4.3	0	0.0	1	2.1	32	68.1	10	21.2	2	4.3	0	0.0	47	100
5	1994-1998	15	9.0	8	4.8	13	7.9	89	53.6	29	17.5	10	6.0	2	1.2	166	100
6	1999-2003	66	18.2	21	5.8	28	7.8	115	32.3	88	24.3	36	9.9	6	1.7	360	100
7	2004-2008	134	24.8	54	10.0	81	15.0	117	21.6	56	10.4	88	16.3	10	1.9	540	100
8	2009-2013	132	25.2	48	9.1	80	15.2	99	18.9	84	16.0	81	15.4	1	0.2	525	100
계		350	20.0	132	7.5	208	11.9	548	31.3	271	15.4	224	12.8	19	1.1	1,752	100

IV. 결론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계의 주요 학회지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0년간 수록된 1,365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 지원 유무, 연구자 소속지역 등 4개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4년부터 2013년까지 40년 동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총

1,365편이며, 그중 89.2%인 1,218편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20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동안에는 10.8%인 147편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20년간 전체 논문의 약 90%가 생산된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발행횟수의 증가, 연구 분야의 확대, 연구자 수의 증가, 연구비 지원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생산적인 연구풍토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주제에 대한 경향을 보면 문헌정보학일반에 대한 논문 생산량이 452편(33.1%)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213편(15.6%)의 논문이 생산된 자료조직 분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보서비스 188편(13.8%), 정보학 155편(11.4%), 독서지도 101편(7.4%), 도서관 경영 91편(6.9%), 서지학 84편(6.2%), 장서개발 58편(4.2%), 기록관리학 20편(1.4%) 순으로, 주제별 연구성과의 차이는 크게 발생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이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문헌정보학일반과 자료조직은 일정한 반면 정보서비스와 정보학은 증가추세에, 장서개발과 서지학은 감소추세에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정보학의 증가추세와 서지학의 감소추세는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논문 내용면에서 보면 1970년대는 주제 세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문헌정보학 일반 및 서지학 연구가 주를 이루며, 논문의 체계도 일정하지 않아 연구기반이 안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연구비 지원 논문과 공동연구 비중이 그 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학 관련 연구의 증가 및 주제 세분화 경향이 대두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정보학 연구의 본격화와 더불어 정보서비스 관련 연구의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포괄적인 주제에서 구체적인 주제로의 세분화 경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사회를 대변하는 용어의 출현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동시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수행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와 동시에 문헌정보학의 위기의식, 사서의 위기의식, 교육의 위기의식 등 현실을 점검하는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장학문으로서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헌정보학의 특수성은 물론 학문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기성찰을 잊지 않는 학문공동체의 교정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연구비 지원 여부는 전체 논문 1,365편 중 428편(31.4%)이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중 315편(73.6%)은 교내지원인 반면 나머지 108편(25.2%)은 정부지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현상은 1974년에서 1978년 5년 동안 0%에서 2009년에서 2013년 5년간은 40.1%에 이를 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역시 증가추세로 분석되었다. 연구비 지원의 증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발전을 이끈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 환경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공동연구의 경향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초창기인 1974년에서 1978년

까지는 전무했던 것과 달리 최근 5년 동안은 303편(22.2%)까지 증가하였다. 그중 2인 공동연구가 237편(78.2%)으로 공동연구의 대부분은 2인 참여로 분석되었다. 공동연구는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참여함으로써 학제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참여로 인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섯째, 연구자 소속지역은 대구/경북에 집중되었던 초창기 현상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1,752명의 소속 지역을 편의상 논문편수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서울 350편(20.0%), 인천/경기/강원 132편(7.5%), 대전/충청 208편(11.9%), 대구/경북 548편(31.3%), 부산/울산/경남 271편(15.4%), 광주/전라/제주 224편(12.8%), 기타 19편(1.1%)으로 여전히 대구/경북의 비중이 높지만 그러나 초창기인 1974년에서 1978년의 현상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기반의 소규모 학회지였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전국규모의 대표학회지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창립회원 15명의 소수 학회지에서 문헌정보학분야를 이끌어가는 대표학회지로 성장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지난 40년을 성찰하고 나아가 무질서 속에 내재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결과적으로 현재를 점검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구상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순애. 1997. 한국의 서지학 연구 경향 : 「서지학연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14: 1-21.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 217-239.
- 김정현. 2011.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분석: 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49-164.
- 김종성. 2013. 문헌정보학 분야 독서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99-124.
- 서은경. 2010. 「한국정보관리지」연구의 동향분석. 『한국정보관리지』, 27(4): 7-32.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1-42.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윤희윤. 2011.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5-4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ang, Soon-Ae. 1997.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Patterns in Bibliographical Science of Kore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4: 1-21.

Kim, Gyu-Hwan, Young-Joon Nam.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1): 217-239.

Kim, Jeong-Hyen. 201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 1970~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149-164.

Kim, Jong-Sung. 2013. "Trends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99-124.

Seo, Eun-Gyoung. 2010. "Trends Analysis on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Management*, 27(4): 7-32.

Sohn, Jung-Pyo.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Yoon, Hee-Yoon. 2011.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5-44.